

陶谷 李宜顯의 생애와 저술에 관한 考察*

신 영 주 **

<目次>

- | | |
|--------------------|------------------------------|
| I. 머리말 | III. 시문 저작 초고본과
간행본 『도곡집』 |
| II. 생애 분기별 행적에 관하여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陶谷 李宜顯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대에 걸쳐 활동하던 정치가이자 문인 학자이다. 세족으로서의 명망을 얻은 가문에서 출생한 도곡은 비교적 순탄하게 벼슬길에 올라 淸要職을 두루 역임하고 영의정에 올랐다. 도곡은 청음의 증손인 農巖 金昌協의 문하에 들어가 老論 洛論의 학맥을 계승하는 대표적 인물이 되었으며, 대체로 관료로서의 정치적 야망을 꿈꾸기보다는 문인 학자적 삶에 치중하여 새로운 지식 정보를 소개하고 시문을 창작하는 일에 진력함으로써 학문과 문예에 공을 남길 수 있었다. 도곡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거의 산문 이론과 연관되어 있다. 산문 창작과 비평에 관한 이들의 이론을 추적하여 조선 후기 산문이론사의 실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술 범위를 도곡의 생애 분기와 시문집의 형태적 양상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도곡집』 역주와 교점 작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도곡의 생애를 분기로 나누어 살피고, 간행본 『도곡집』의 형태적 양상에 대해

* 이 논문은 2012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조교수 / zuowang@hanmail.net

대략의 윤곽을 조망하는 수준에서 서술을 진행하였다.

【주제어】 도곡, 이의현, 산문, 연행록, 신임사화

I. 머리말

陶谷 李宜顯(1669~1745)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대에 걸쳐 활동하던 정치가이자 문인 학자다. 조부 李挺岳(1610~1674)이 坡州牧使를 지낸 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부친 靄沙 李世白(1635~1703)이 관료로서 왕성하게 활동하여 좌의정에 올랐다. 세족으로서의 명망을 얻은 가문에서 출생한 도곡은 비교적 순탄하게 벼슬길에 올라 淸要職을 두루 역임하고 영의정에 올랐다. 조부가 淸陰 金尙憲의 손녀사위가 되면서 장동의 안동김씨와 인척의 연을 맺었는데, 이후 도곡은 청음의 증손인 農巖 金昌協의 문하에 들어가 老論 洛論의 학맥을 계승하는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고 노소가 분기하여 다시 격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성장하고 출사하여 몇 차례의 정치적 굴곡을 겪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관료로서의 정치적 야망을 꿈꾸기보다는 문인 학자적 삶에 치중하여 새로운 지식 정보를 소개하고 시문을 창작하는 일에 진력함으로써 학문과 문예에 공을 남길 수 있었다.

도곡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거의 산문 이론과 연관되어 있다. 선조 시기 이후로 진한고문과 의고문이 소개되고 이를 추구하는 경향이 형성된 뒤로 고문의 성격과 의고문의 성과에 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 이 의고적 문풍은 점차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당송고문의 문풍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면서 산문 이론에 관한 담론이 더욱 활기를 띠었는데, 이런 변화의 정점에 농암 김창협과 도곡이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산문 이론가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들의 이론을 밝히기 위한 논문이 여러 편 제출되었다. 산문

창작과 비평에 관한 이들의 이론을 추적하여 조선 후기 산문이론사의 실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¹⁾

이런 이유로 『도곡집』에 실린 碑誌類 산문과 「雲陽漫錄」, 「陶峽叢說」 등이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운양만록」과 「도협총설」에는 당대 조선 문단과 학계의 현황을 비롯해 중국 문물을 수용하고 비평하는 문제에 관련한 도곡의 발언이 상당히 실려 있어, 조선 후기 문학사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다만 본 논고에서는 서술 범위를 도곡의 생애 분기와 시문집의 형태적 양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도곡집』 역주와 교점 작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도곡의 생애를 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간행본 『도곡집』의 형태적 양상에 대해 대략의 윤곽을 조망하는 수준에서 서술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II. 생애 분기별 행적에 관하여

1. 諡號 ‘文簡’에 대하여

우선 도곡의 생애 분기를 살펴보기 전에 도곡의 일생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평가에 대해 알아본다. 국가의 공식적 평가는 실록에 실린 졸기와 諡號에서 확인된다. 도곡은 ‘文簡’이란 諡號를 받았다. 아래는 『영조실록』에 기록된 도곡의 졸기다.

봉조하 李宜顯이 졸하였다. 宜顯은 李世白의 아들로 文學을 좋아하고 淸儉을 스스로 지켰다. 三朝를 두루 섬겨 지위가 上相에 이르렀다. 비록 經世濟民의 재능은 없었으나 어지러운 시기에 홀로 淸議를 지켜 선비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

1) 鄭玉子(1984); 奇貞順(1994); 奇貞順(1999); 박은정(1999); 鄭順姬(2001); 송혁기(2003); 조성산(2003); 정순희(2004); 신복호(2004); 김하운(2004); 박은정(2005); 민복기(2007A); 민복기(2007B); 사경화(2012).

았으며, 성상이 이 때문에 공을 중시하였다. 졸하자 성상이 애도하고 안타까워 하였다.²⁾

짧은 언어로 요약된 평생의 행적은 다시 ‘文學’과 ‘清儉’이라는 핵심어로 간추려져 있다. 다만 三朝의 핵심 관료로서 어지러운 정국에 휩쓸리지 않고 清議를 지켜 선비들의 존경을 받은 점을 높이 평하면서도, 동시에 經世濟民의 재능이 넉넉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런 평가는 사후에 내려진 시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陶谷이 별세하고 2년이 지난 정묘년(1747, 영조23) 12월 21일에, 兪拓基가 작성한 시장을 근거로 내려진 ‘文簡’이라는 시호에는 아래와 같은 시범이 적용되었다.

‘부지런히 배우고 문기를 좋아함’을 ‘文’이라 하고, ‘정직하여 사특함이 없음’을 ‘簡’이라 한다. [勤學好問曰文, 正直無邪曰簡.]

여기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문기를 좋아함[勤學好問]’은 ‘文學’에 해당하고 ‘정직하여 사특함이 없음[正直無邪]’은 ‘清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곧 졸기와 시호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 도곡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평가가 서로 통하며 ‘文’과 ‘簡’, ‘文學’과 ‘清儉’으로 압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범에 ‘文’자는 ‘經緯天地’, ‘修德來遠’, ‘勤學好問’, ‘道德博聞’, ‘慈惠愛民’, ‘敏而好學’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 조정에서는 사대부 문신에게 ‘文’자의 시호를 내릴 경우에 대개 ‘勤學好問’과 ‘道德博聞’ 두 가지 諡註를 적용하였는데, 흥미롭게도 두 諡註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 『英祖實錄』 21년(1745, 을축) 4월 8일 기사, “奉朝賀李宜顯卒. 宜顯世白之子也, 喜文學, 清儉自持. 歷事三朝, 位至上相. 雖無經濟之才, 板蕩之時, 獨持清議, 深得士望, 上以是重之. 及卒, 上悼惜之.”

‘道德博聞’의 ‘文’자는 從祀한 諸臣이거나 道德으로 세상의 儒宗이 될 만한 분이 아니면 한 번도 함부로 내려진 경우가 없습니다. 祖宗朝 이래로 많은 名臣과 碩輔가 ‘文’자의 시호를 받았지만 모두 ‘勤學好問’의 ‘文’자입니다.³⁾

1686년 7월 13일 午時에 숙종이 熙政堂에서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한 자리에서 응교로 있던 李頤命이 아뢴 말이다. 鶴峯 金誠一(1538~1593)의 시호가 ‘文忠’인데, ‘文’자의 謚註가 ‘道德博聞’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었다. 학봉에게 ‘道德博聞’의 ‘文’자가 마땅한 지 아니면 ‘勤學好問’의 ‘文’자가 마땅한 지를 이 자리에서 굳이 논할 것은 없지만,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대상사가 鶴峯 金文忠公의 시호를 논하면서 ‘道德博聞’의 ‘文’자으로 정했는데, 김수항과 이이명 등이 金某가 ‘一節之士’라고 하여 ‘勤學好問’으로 改註하였다. 그래서 이때에 부군이 講을 마친 뒤에 문충공의 道學源流에 대해 다 아뢰고 前註를 그대로 쓸 것을 청하니, 성상이 따랐다.⁴⁾

이는 기사년(1689)에 葛庵 李玄逸이 학봉에게 ‘道德博聞’의 ‘文’자가 마땅하다고 숙종에게 아뢴 일화를 기록한 것이다. 갈암은 설득을 위해 학봉의 道學源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는 학봉이 ‘從祀한 諸臣’이나 ‘道德으로 세상의 儒宗이 될 만한 분’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시도한 것일 터이다.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勤學好問’의 ‘文’자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갈암은 실제로 학봉이 퇴계의 高弟로서 早歲聞道하여 立心行己를 모두 道義에 맞

3) 『承政院日記』 肅宗 12年(1686) 7月 13日 기사, “頤命曰, 臣考見本館謚謄錄, 則宣祖朝宰臣金誠一之謚爲文忠, 而其文字註釋, 乃道德博聞也. …… 至於道德博聞之名, 則非從祀諸臣及他道德爲一世儒宗者外, 無一濫授者. 祖宗朝以來, 名臣碩輔, 多以文字爲謚, 而皆是勤學好問之文.”

4) 李栽 『密菴集』 권22 「先府君家傳」, “初太常議鶴峯金文忠公謚, 以道德博聞曰文. 金壽恒李頤命等以爲金某是一節之士, 改註勤學好問. 至是府君嘗因講畢, 極陳文忠公道學源流, 請仍前註從之, 公論聽之.”

게 하였을 뿐 아니라 퇴계로부터 堯舜 이후로 전해진 道統의 眞訣을 쓴 기록을 받았으므로 師門의 衣鉢을 전수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었다.⁵⁾

그렇다면 도곡이 ‘勤學好問’의 ‘文’자를 받았다는 것은, 도곡이 ‘從祀한 諸臣’이나 ‘道德으로 세상의 儒宗이 될 만한 분’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학문에 부지런하고 문학에 공을 세운 인물로 평해졌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도곡의 정체성이 도학 연원의 핵심 계승자에 있다고 보지 않고, 학자 문인의 지점에 있다고 보았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李睟光(1563~1628)과 鄭蘊(1569~1641)이 ‘勤學好問’의 ‘文’자를 받은 경우와 같다. 農巖 金昌協(1651~1708)도 제자인 도곡처럼 ‘文簡’이란 시호를 받았지만, 농암의 경우는 ‘道德博文曰文’과 ‘一德不懈曰簡’의 시주가 적용되었다. 이밖에도 金世弼(1473~1533), 成渾(1535~1598), 曹好益(1545~1609)을 비롯해 李喜朝(1655~1724)의 경우처럼 道學源流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인물들에게 ‘道德博聞曰文’의 시주가 적용되었다.

한편 ‘正直無邪’라는 의미의 ‘簡’자가 내려진 것은, 줄기에서 언급하였듯이 도곡이 ‘淸儉’을 지키고 ‘淸議’를 지지하였음을 평한 말이다. 도곡의 정체성이 經世濟民의 재능을 발휘하여 국가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민생 해결에 전념하는 전문 관료적 삶에 있다고 보지 않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뒤엉켜 혼란하게 돌아가는 시국 속에서도 유가적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당한 도리를 실현하기 위해 진력한 선비 학자적 삶에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金誠一『鶴峯集』附錄 권1 「年譜」, “【十五年】己巳七月二十一日, 筵臣請復謚註, 允. 【特進官陸昌明啓曰 ‘先正臣金誠一, 賜謚文忠, 而初以道德博聞之文, 懸註啓下矣. 其後李頤命謂之過濫, 金壽恒亦以爲金誠一是一節之士, 道德博聞果太濫, 以勤學好問, 改其謚註. 蓋誠一非特節義之士, 其學問道德, 實非諸儒所及, 而壽恒頤命輩乃敢輕改謚註事, 當還用舊註矣.’ 祭酒臣李玄逸啓曰 ‘誠一即先正臣李滉之高弟, 早歲聞道, 平生立心行己, 皆從道義中出. 李滉嘗書堯舜以來道統眞訣以畀之, 可謂得師門衣鉢之傳矣. 壽恒輩安得知其道德之淺深, 而敢爲輕改. 士論莫不憤惋, 今若仍用初註, 實爲士林之幸矣.’ 上曰 ‘公議皆以改註爲非, 以初註道德博聞, 仍存可也.】”

2. 생애 분기에 대하여

도곡은 현종 10년(1669) 5월 18일 寅時에 서울 北部 鎭長坊 昭格洞에 있던 외증조 鄭維城(1596~1664)의 舊宅에서 출생하여 영조 21년(1745) 4월 6일 亥時에 南部 明禮坊 南洞의 저택에서 향년 77세로 별세하였다. 그 사이의 일생의 행적이 『도곡집』에 수록된 『기년록』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생애의 추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분기를 나누어보고자 한다. 일찍이 奇貞順(1999)은 도곡의 생애를 수학기[출생(1669년)~갑술환국(1694년)], 사환기[1694년~신임사화(1722년)], 노년기[1725~별세(1745)]로 나눈 바 있다. 본고에서는 다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사환기와 노년기의 일부를 따로 纂修期로 분리하여 修學期, 强仕期, 纂修期, 隱退期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纂修期가 도곡의 일생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1) 修學期 : 1669~1695 (出仕 이전)

출생 이후부터 출사하기 전까지의 시기로, 부친을 따라 여러 지역을 오가며 학문 독서에 매진하던 때다. 이 시기에는 甲寅禮訟(1674)을 비롯해 남인 일파가 실각되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한 庚申大黜陟(1680)과 元子 문제를 빌미로 남인에 의해 서인이 실각하여 우암 송시열이 사사되고 민비가 폐위되었던 己巳換局(1689)과 같은 굵직한 정치적 격동이 있었으나 도곡은 아직 이런 파란에 휩쓸리지 않고 학문 독서에 매진하였다.

도곡은 태어나던 해에 牙山縣監에 제수된 부친 李世白을 따라 서울을 떠나 현종 15년(1674)에 다시 서울 소격동으로 돌아올 때까지 牙山에서 6년의 유아기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해 숙종 원년(1675) 정월에 洪川縣監에 제수된 부친을 따라 洪川에 가서 한해를 머무르고, 이후로는 혼례를 치를 때까지 한동안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서울에서는 주로 소격동 외가에 머물렀지만 조모 安東金氏가 숙종 3년(1677) 12월에 별세하고 11개월

뒤에 조부가 별세하여 거상하던 시기에는 泥峴과 부친이 머물던 梨峴의 廬次를 오가며 수학하였다. 조모 安東金氏는 淸陰 金尙憲의 손녀다.

도곡은 흥천에 머무르던 시절에 부친에게 처음으로 『訓蒙字會』를 배웠다. 9세에는 부친에게 『史略』과 『唐詩』를 배우고 李穡(1635~1679)와 尹以健(1640~1694)·尹以性(1644~?) 형제에게 수학하였다. 10세에는 李遇輝(1648~1707)와 權尙明(1652~1684)에게 배웠으며, 11세에는 이모부 李秀實(1652~?)에게 『史略』 7권을 배우고 가을에 梨峴의 廬次에서 부친에게 『小學』을 배웠다. 이 무렵부터 日課로 배우는 교재 이외의 서책을 열람하고 朝報나 疏章에 이르기까지 두루 보아 文理가 저절로 통하게 되었다. 이후 冠禮를 치르기 전까지 집안의 서적을 모두 열람하였다고 한다.

12세에는 梨峴에서 『孝經』, 『論語』, 『詩傳』, 『史記』를 배웠으며 겸하여 唐詩와 韓詩를 읽고 古風詩를 습작하였다. 13세에는 『孟子』, 『大學』과 李白詩를 읽고 古風詩를 지었으며, 禹弘成(1617~1706)에게 왕래하며 수학하였다. 14세에는 일찍이 읽었던 서적들을 다시 익히고 겸하여 詩를 지었다. 15세에는 4월에 관례를 치르고 10월에 관찰사 魚震翼의 따님 咸從魚氏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해에 『綱目』과 『史記』를 읽고 겸하여 詩를 지었다.

16세에는 부친을 따라 해주에 가서 『書傳』을 읽고 程式詩를 짓기를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였다. 그 사이 石潭, 廣石, 首陽山 등 여러 명승지를 유람하고 紹賢書院과 文憲書院을 참배하고 지나는 길에 花石亭과 映水屏을 유람하였다. 17세에는 12월에 부친을 따라 평양에 머물면서 이듬해 겨울까지 한 해 동안 이미 읽었던 서적들을 복습하고 겸하여 詩를 지었다. 溟都의 여러 명승지를 유람하고 詩를 지은 것이 더욱 많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19세에는 廣州留守에 제수된 부친을 따라 가서 9월부터 2년 동안 머물며 『中庸』, 『論語』, 『杜詩』를 읽었다.

21세에 정세가 급변하여 5월에 부친을 따라 부친의 외가가 있는 高陽의 元堂으로 이사하고, 이듬해 2월에는 부친을 따라 廣州 楮島로 이사하여 25세까지 지냈다. 이 5년 사이에 도곡은 『莊子』, 『楚辭』, 『論語』, 『詩』

傳』, 『韓文』, 『漢書』를 수백 번 반복하여 읽고 수천 수의 古律詩와 약간의 散文, 駢儷, 雜製를 지었다. 26세에는 마침내 농암 선생에게 『論語』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 슬하를 떠나지 않고 남들과 追隨하지도 않았다. 儒士는 으레 同儕와 함께 일하는데, 이를 同接이라 한다. 하지만 나는 원래 同接도 없이 집에서 讀書하고 詩文을 지었을 뿐이다. 그래서 30세에 가깝도록 나를 아는 자가 없었다.⁶⁾

26세 이전의 자신이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다. 사교를 넓히기 보다는 침잠하여 독서와 작문에 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곡은 유년 시절에는 대개 소격동을 중심으로 충정공의 근무지를 따라 牙山과 洪川, 海州, 平壤, 廣州 등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부모 슬하에서 학문 독서에 전념하다가 1694년 4월에 元堂에서 서울로 이사한 뒤로 별시 문과에 합격하여 마침내 관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2) 强仕期 : 1695~1721 (辛丑獄事 이전)

도곡이 甲戌換局(1694) 이후 치러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출사한 이후부터,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하면서 소론이 신임사화를 통해 실권을 장악하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도곡이 벼슬길로 들어서게 된 것은 숙종 20년(1694) 9월과 10월에 걸쳐 치러진 別試文科에 합격하면서부터다. 이해에 숙종이 갑술환국을 단행하여 폐위되었던 閔妃를 복위시키고 문묘에서 출향되었던 李珣와 成渾을 復享시켰는데, 이를 경축하기 위해 시행한 別試다.

6) 李宜顯 「紀年錄」 二十年甲戌 【二十六歲】, “余自省事以後, 不離父母膝下, 未嘗與人追隨. 儒士例與同儕相會做工, 名曰同接. 余則元無同接, 唯在家讀書, 作詩文而已. 以此年近三十, 無知有餘者.”

평소부터 과문을 멀리하고 성현의 글을 읽으며 진정한 학문에 진력하겠노라고 다짐하던 도곡은 숙종 20년(1694) 정월에 당시 豐壤(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 成陵寺에 우거하던 農巖을 찾아가 예를 갖추고 『논어』를 질정할 때에 농암이 품은 뜻을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古人이 과거에 응시한 까닭은 道를 실현하기 위함이지만, 今人에겐 가문의 영광과 자신의 부귀를 위한 도모일 뿐입니다. 그래서 급제한 뒤엔 서책을 버리고 名利를 뒤쫓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세상이 온통 이러하니 어찌 개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文質이 부족하고 이렇다 하게 道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부친이 宰樞에 올라 제가 현달하지 못해도 가문에 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저 宦海의 파도 속을 오르내림은 제가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과거를 치를 시기도 아니지만, 세도가 새로워져도 응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先生長者를 좇아 經史를 강론하고 고인의 글을 두루 읽어 식견을 넓혀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제 뜻입니다.⁷⁾

이 말을 들은 농암은 기뻐하면서, “지금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科業에 매여 있어 다른 일을 알지 못한다. 그대가 과업 외에도 마음 쓸 곳이 많은 줄을 안다면, 헤아릴 수 없는 발전이 있게 될 것이네. 늘 이 마음을 지켜 더욱 힘쓰시게.”⁸⁾라고 경계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네 뜻이 참으로 훌륭하고 가상하나 이번 과거는 예삿일이 아니니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차후로 다시 과업을 폐하고 實地를 일삼아 네 본 뜻을 실천해도 될 것이다.”⁹⁾라는 부친의 권유를 거스르지 못하고 응시했다가 합격

7)상계서, 二十年甲戌 【二十六歲】，“農巖時寓居豐壤成陵寺，農巖問余所志。余對曰‘古人應舉，將以行道。今人不過爲門戶榮與一身富貴計耳。以此既得科第之後，拋棄書冊，追逐名利場，以了一生。舉世滔滔，豈不可慨。吾則文質無所底，既無行道之可言，吾父位宰樞，吾雖未達，無損於門戶。只爲頭出頭沒於宦海波中，非我所堪。今日固非應舉時，設令世道更新，欲仍不赴舉。從遊先生長者，講究經史，博觀古人文章以自澆灌，免作樵陋無聞之人，是吾志也。’”

8)상계서, 二十年甲戌 【二十六歲】，“農翁喜曰‘子之言善矣。今人大抵牴心科業，不知其他。子能知科舉外有許多用心處，其進殆未可量。須常持此心，益加勉旃。’”

하게 된 것이다.

도곡은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로 假注書(26세)가 되고 承文院에 分隸(27세)되었다가 예문관검열(28세)이 되었다. 이후 육조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고 사간원대사간(44세), 성균관대사성(45세), 홍문관부제학(45세), 승정원도승지(48세), 사헌부대사헌(48세), 한성부판윤(52세), 형조판서(52세), 의정부우참찬(52세) 등을 역임하였다. 숙종 46년(1720) 11월에는 冬至正使로서 사행에 오르고, 연경으로 가는 도중에 지중추부사(52세)에 제수되었다. 외직으로는 모친 봉양을 위해 乞郡疏를 올려 金城縣令(38세)이 된 뒤로,¹⁰⁾ 伊川府使(41세), 경상도관찰사 겸 대구부사(43세), 황해도관찰사 겸 해주목사(46세), 개성부유수(48세), 경기관찰사 겸 개성부유수·강화부유수(49세) 등을 역임하였다.

애초에 출사에 뜻이 없다고 했던 도곡이었으나, 일단 출사한 뒤로는 한 동안 별다른 출처의 변동이 없이 관료생활에 힘을 다하였다. 다만 辛巳(1701)에 인현왕후가 승하한 뒤에 희빈 장씨와 장희재가 왕후를 저주한 일로 인해 함께 처형되는 獄事가 발생하면서 노소 분쟁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癸未(1703)에 부친상을 당하고 丁酉(1717)에 모친상을 당하여 거상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것은, 己丑(1709)에 이천 부사가 되어 金剛山과 伊川 일대를 유람하고 遊記를 남긴 사실과 辛卯(1711)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뒤에 산송 문제로 발생한 朴孝娘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복잡하게 전개되어 사회문제로 크게 비화되면서 이후 여러 문인들에 의해 문학적 소재로 활용된 사실이다.¹¹⁾ 庚子(1720)에 冬至兼正

9)상계서, 二十年甲戌【二十六歲】，“是科，卽以中殿復位之慶，設行者也. 忠正公謂余曰‘汝志誠可嘉尚，第今科非例舉，不可不赴. 此後復廢舉，從事實地，行汝本志，無所不可. 遂不獲守初心，入場，以書牘策次上，得中二等第十人. 主司頗賞以有作者氣.’”

10)李宜顯『陶谷集』권5「辭副校理仍乞郡疏【丙戌】」.

11)전경목(2005); 류준경(2004); 김혈조(1989).

朝聖節進賀正使로 연행을 다녀오면서 남긴 「庚子燕行雜識」 역시 도곡의 학문과 문학 세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저술로 특기할 만하다.

하지만 도곡이 급제 이후 관료 생활에 매진하였지만 늘 마음 한편에 初志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었다. 다음을 도곡의 이런 생각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나는 애초부터 과거급제를 바라지 않았고 명성을 얻는 길로는 더욱 나서고 싶지 않았다. 農巖도 어린 나이에 출사는 급선무가 아니라고 경계하셨지만 그 안에 들어선 뒤로는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農巖을 뵈 적마다 탄식하는 말을 하니, 農巖이 “지금 형편에 어쩔 수 없다. 紛華한 중에도 초심을 잊지 않으면 된다.” 하셨다. 이에 나는 禁省에서 바쁜 중에도, 하루도 책을 덮고 보지 않은 적이 없다.¹²⁾

곧 몸은 비록 환로에 있으나 애써 학자 문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종 즉위 이후에 소론의 주도로 발생한 사화를 계기로 출처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생겼던 듯한데, 이는 그의 평소의 뜻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 동안 환로에 머물러 여러 관직을 맡은 것은 사실이나 이 시기 이후로 환로에 대한 회의적 심경을 여러 지면에서 드러내기 시작하여 이전과는 구별된다.

3) 纂修期 : 1721~1728 (肅宗實錄刊行 이전)

경종이 즉위한 이후부터, 유배기를 거쳐 『숙종실록』의 찬수를 마칠 때까지의 시기이다. 숙종이 庚子(1720) 6월에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하면 서부터 정치적 상황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경종이 後嗣가 없이 병

12) 李宜顯 「紀年錄」 二十二年丙子【二十八歲】，“余於科第，已非初心所期，尤不欲進取名路。農翁又有少年仕宦非所急之戒，而既入圈套，不得自脫，以至於此。每對農翁，輒發慨歎語，農翁曰‘今則勢固無奈。唯紛華之中，不忘初心，爲庶幾焉耳。’以此，余雖於奔走禁省之時，未嘗一日廢書不觀。”

이 많았으므로 노론사대신을 중심으로 한 노론의 주장으로 辛丑(1721) 8월에 延祔君을 世弟로 책봉하였는데, 이해 10월에 세제에게 聽政을 맡기는 문제로 다시 소론과 격돌하면서 노론사대신과 노론 세력이 축출되고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도곡의 행적도 굴곡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도곡은 이해 12월에 金一鏡 등에 의해 탄핵을 받아 削奪官爵과 門外出送의 처벌을 받고, 이듬해 6월에는 멀리 雲山으로 유배되어 죄인의 신분으로 3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후 소론 강경파는 壬寅(1722) 3월에 발생한 陸虎龍의 고변을 기회로 삼아 노론사대신을 극형에 처하게 만들고 노론 세력을 일시에 몰아내고자 하였다. 이런 정치적 격변을 겪는 동안 도곡은 서서히 삶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도곡이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 곧바로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도곡은 예조판서(53), 이조판서(53), 특진관(53), 실록도청당상(53), 예문관제학(53), 장악원제조(53), 내의원제조(53), 판의금부사(57), 세자우빈객(57), 홍문관대제학(57), 예문관대제학(57), 지성균관사(57), 실록청총재관(59), 우의정(59)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도곡은 이 무렵부터 점차 관료로서의 삶에서 이탈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영조 즉위 후에 사면되어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이제 벼슬에 뜻이 있다기보다는 실록 찬수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인다. 실록청 당상으로서 맡은 일을 최후의 소임으로 생각하며 모든 힘을 『숙종실록』 찬수에 기울였다. 물론 이 일을 마치는 날을 자신의 은퇴시기로 상정하였다. 이후에도 완전히 은퇴했다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실록 찬수를 마친 이후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줄곧 陶山으로 물러나 있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史局에서 종사하던 시기를 따로 하나의 분기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의 기록은 이 시기 도곡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각각 영조 원년과 영조 2년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해(1725)에 적소에서 돌아와 즉시 귀향하려 했지만 입궐한 뒤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休沐을 청한 뒤에 가만히 물러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성상께서 윤택하지 않으셨다. 또 여러 번 의망되기도 하였으나 성상께서 번번이 순서를 건너뛰어 다른 사람을 낙점하셨으니, 성상께서 별달리 돌봐주시지 않으신다는 것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무단히引退한다면 또한 행적에 혐의가 있으므로 참고 견디며 그대로 눌러 앉아 있었던 것이다. 결코 本意는 아니었다.¹³⁾

내가 즉시 물러나지 못할 형편이라면, 銓部가 정치의 근본인데 정치의 근본이 맑아지면 國事가 바로잡힐 것이니, 쌓인 폐단을 쇄신하여 위임해주시는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함부로 생각하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세상 형편도 갈수록 위태해졌다. 또 銓衡과 文柄을 겸하여 맡아 人物을 通塞하는 일이 없지 않았는데, 시험을 관리하는 일을 더욱 청렴하고 엄격하게 하여 조금도 사심이 섞이지 않게 하였지만, 이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을 사게 되었고 심지어 밤에 가명으로 투서하여 욕을 보이려는 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대신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 일을 할 수 없는 때임을 알고 겨울(1725)의 大政이 지난 뒤에 기어코 면직될 때까지 힘껏 사직하여 결국 西叙의 직함을 받게 되었다. 이후로는 조정에 머물러 있더라도 입을 다물고 時事를 논하지 않았다. 오직 날마다 史局에 나가 纂述에만 전념하였다.¹⁴⁾

해배되어 돌아온 초기에 귀향할 생각이 강하였으나 여러 정황으로 인해 마지못해 눌러앉아 있었고, 기왕에 이조 판서가 되었으므로 국정의

13)상계서, 英祖元年乙巳 【五十七歲】，“是歲自謫還，即欲歸田，而既入之後，行止不得自由。擬乞休沐之暇，逶迤得退，而上不許，屢入剡擬，輒越次而用他人，人皆知上意不甚眷毗。此時無端引退，亦有形迹之嫌，隱忍仍蹲，大非本意也。”

14)상계서, 英祖二年丙午 【五十八歲】，“余既不能即退，則念銓部是政本，政本若清，國事可做，妄欲振刷積染，以副委寄之意。而人心不如我心，時象轉益危隍。且以銓衡兼文柄，不無通塞人物之事。掌試尤精白淬厲，不敢一毫涉私，以此多怨於人，至有乘夜投假名書而辱之者。朝右又寡助，知不可有爲，及經冬月大政，力辭必免，遂西叙。自後雖寄跡朝端，而絕口不言時事，唯日仕史局，專意纂述而已。”

폐단을 쇠신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졌으나 여의치 않았으므로 결국 史局에서 纂述에 몰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해(1726)에는 하는 일에 우려가 더욱 많고 종적도 더욱 외롭고 기구하여 귀향하고 싶은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던 史局의 일이 또한 중대한 일인 데다, 이미 心力을 모두 기울여 대강 倫緒를 갖추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버려두고 물러나 달아난다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집안일처럼 생각하기를 나와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일도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었다. 그래서 완성을 보지 못할까 걱정되어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였다. 속히 汗靑을 본 뒤에 사직하고 물러남으로써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온전하게 하고 싶었다. 또한 이로써 先朝가 베푸신 恩遇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¹⁵⁾

실록 찬수는 도곡에게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일로 여겨졌던 듯하다. 우선은 위에 보이듯이 이로써 숙종이 자신에게 베푼 恩遇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가장 명확히 드러나 있는 이유겠지만, 그 내면에는 아마도 자신이 史筆을 발휘하여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었던 숙종 재위 연간의 시대 정의를 바로 규정해보고 싶은 의도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는 정치 지형 속에서 자신에게 규정된 정치적 정체성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으나, 서인과 남인이 격돌하고 노론과 소론이 분기하여 정쟁을 심화시키면서 정의가 왜곡되고 시비가 모호해져 정치적 굴곡을 빚어내었던 불행한 역사를 직접 찬술하여 전함으로써 역사의 정의를 밝히고자 하는 史家로서의 포부가 반영되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생각은 아래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15)상계서, 二年丙午 【五十八歲】 , “是年持事益多可憂, 蹤迹愈覺孤崎, 歸意如水, 不可止遏. 而所管史事, 關係亦重, 既費盡心力, 粗就倫緒. 今若棄擲退遁, 他人未必早夜勤悴, 視若一家事, 如我之爲, 此事亦終歸於壞了矣. 惜其不成, 遲徊未決. 蓋欲快觀汗靑而辭退, 庶幾兩全公私, 亦以爲酬報先朝恩遇之萬一云.”

견책을 받고 물러난 것이 비록 송구한 일이지는 하지만, 歸計가 어긋나 근심이 날로 심해지던 차에 이 일을 만나 영원히 閑人이 될 수 있었으니 어찌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史事에 수십 일을 더 쓰면 유감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미처 하지 못하였다. 이제 분명 흉도들에 의해 漫滅되어 이전의 공로가 전부 버려질 것이었으므로, 이것이 평생의 恨이 되었다.¹⁶⁾

이는 정미환국(1727)으로 우의정에서 파직되어 楊州 陶山으로 물러나 있을 때에 관한 기록이다. 실록 찬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필을 소론 측에 넘겨주면 그 사이 진행된 서술 관점이 뒤집히고 훼손될 것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 당시 노소의 대립 구도 속에서 정국이 바뀔 때마다 『숙종실록』 찬수의 주체들도 거듭 바뀌었는데, 다시 정국을 장악한 소론 측이 전면 개수를 주장하고 나섰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도곡의 우려가 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곡이 노론 측의 정서와 정치적 입장 속에서 실록 찬수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 한계를 떨치기는 어렵겠지만, 귀향을 미루며 실록 찬수에 매진했던 점에서 도곡이 이 일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隱退期 : 1728~1745 (肅宗實錄刊行 이후)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어 도산으로 물러난 뒤부터 몰년까지이다. 정미환국 이후 도곡은 거의 은퇴할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戊申(1728) 3월에 李麟佐 등에 의해 반란이 일어나자 관중추부사(60)에 제수되어 사태 수습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사태가 진정되자 한 달 뒤에 곧바로 물러나 도산으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종종 명이 있을 때에 부득이 입궐하였으나 도성에 머무르는 날이 급격하게 줄고 대개 도산에서 생활하였다. 庚戌(1730)에 謝恩兼冬至正使에 차임되었을 때에도 굳이 사임하

16)상계서, 三年丁未 【五十九歲】，“被譴斥退，雖可悚慙，歸計差池，愁鬱日甚，而遭此節拍，將永作閑人，豈不幸甚。但史事若消得數十日，可以梳洗無憾而未及焉。今必爲兇徒所漫滅，前功盡棄，是爲終古之恨矣。”

여 체차되었다. 그러나 壬子(1732)에는 다시 謝恩正使에 차임되어 7월에 노정에 올라 이해 12월에 복명하였다. 이후 乙卯(1735)에도 원임대신으로 입궐하느라 서울에 머물다가 2월 12일에 갑자기 영의정(67)에 제수하는 명을 받았지만, 다음날 곧장 물러나 도산으로 돌아가 버렸다.¹⁷⁾ 같은 달 28일에는 李載厚의 投疏에 맞서 상소하였다가 영조의 뜻을 거슬러 특명으로 관작이 삭탈되었다. 이후로도 판중추부사(67)와 영중추부사(69)에 제수되어 번번이 조정에 불러졌으나 그때마다 다시 도곡으로 물러나곤 하였다. 마침내 戊午(1738)에 耆老社에 들어가고 壬戌(1742)에 致仕하였다.

Ⅲ. 시문 저작 초고본과 간행본 『도곡집』

도곡은 말년에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는 의미를 갖는 몇 가지 작업을 한 바 있다. 1735년에서 1742년에 걸쳐 「自表」와 「自誌」를 작성하고,¹⁸⁾ 1744년에 자신의 出處와 官歷 등 일생의 행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紀年錄」을 완성했다.¹⁹⁾ 또 아들 普文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신의 詩文著作을 유형별로 편철하여 정리하였다. 이런 사실은 「遺識」와 「詩卷題語」에서 확인된다. 아래는 「遺識」의 기록이다.

아이가 생전에 아버지가 지은 글이라 하여 너무 아껴 부지런히 거두어 모았다.

17) 상계서, 十一年乙卯 【六十七歲】，“余之留京，非得已也。上既以不煩職事爲教，身同放臣，故爲時月黽勉計。中間屢欲還山，以病故中止，心常鬱鬱。及有是命，則心事尤復違背，決不可留在，遂作逃遁之行。”

18) 「自誌」는 1735년에 2월까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후부터 1742년 정월까지의 행적이 추가로 기술되어 있다. 1735년에 2월 이후에 1차 완성한 뒤에 1742년에 추가 기술이 이루어진 듯하다. 「自表」는 아들 普文이 1740년 4월에 사망 뒤에 普文의 후사로 입양한 學祚를 기술하고 있다. 이 역시 「自誌」를 최종 완성하던 무렵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紀年錄」은 1744년 11월까지의 행적이 도곡 자신에 의해 기록되어 있고, 이후의 행적은 손자 李學祚에 의해 추가 기술되어 있다.

그 중에 내가 직접 써서 卷帙을 이룬 것도 많다. 이제 차마 遺墨이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없어 그대로 보관해둔다. 또 생각하기에, 내가 죽은 뒤에 자손들이 50년간의 出處와 言論의 대강을 더욱 잘 알아야 하므로 모두 家人에게 맡겨 亡子의 후사에게 전해준다.²⁰⁾

「遺識」에는 평생 창작한 시문을 문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해둔 사실이 적혀있다. 말년까지 수습한 시문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는데, 간행본 『도곡집』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초고의 형태를 보여준다. 모두 1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권수로는 44권이 된다. 아들 普文이 후사 없이 26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나자 도곡이 직접 草稿를 정리하여 嗣孫 學祚에게 전한 것이다.

「遺識」의 기록을 바탕으로 도곡이 생전에 남긴 저술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²¹⁾

연번	서명	권수	내용
1	『漫韻』	6	古律詩 3,200여 수
2	『章疏錄』	4	疏筭 400여 수
3	『啓議狀牒等錄』	2	啓辭, 收議, 呈辭, 供狀 140여 수
4	『應製錄』	1	代撰한 大小文字 70여 수
5	『金石錄』	8	碑碣, 誌, 表狀 180여 수
6	『壹惠錄』	1	謚狀 14수
7	『述德錄』	1	先考妣의 狀表와 年譜 4수
8	『志過錄』	1	自誌, 自銘, 紀年, 附亡室狀誌 7수
9	『雜述錄』	2	散文 70여 수
10	『竿牘錄』	1	尺牘 120여 수

20)李宜顯 『陶谷集』 권26 「遺識」.

21)상계서, 권26 「遺識」.

11	『餘贅錄』	1	投荒時와 歸田時의 雜識
12	『堂后日記』	2	甲戌과 乙亥의 假注書 시기
13	『丙丁日錄』	3	丙子와 丁丑의 翰林 시기의 史草
14	『簪筆錄』	4	丙子와 丁丑과 戊寅의 翰林 시기의 筵說
15	『燕行日錄』	3	庚子와 壬子の 再赴 시기
16	『西遷日錄』	2	雲山 積소 시기의 日錄
17	『私考』	2	自生年至末終

이는 『도곡집』을 간행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초고본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 초고본이 산삭 정리되어 현재의 『도곡집』이 완성된 것이다. 위에 제시한 초고본의 형태는 간행본과 다소 차이가 있다. 간행본에는 詩 707수, 疏筭 71수, 啓 3수, 議 1수, 應製 31수, 神道碑銘 31수, 碑銘 3수, 碑 5수, 墓碣銘 65수, 墓誌銘 54수, 墓表 44수, 行錄 1수, 諡狀 11수, 行狀 5수, 序 10수, 記 2수, 傳 2수, 題跋 9수, 祭文 4수, 雜著 6수(운양만록 1수, 도협총설 1수 포함), 雜誌 3수, 書牘 78수, 紀年錄 1수가 실려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권차	문체	작품 수	해당 초고본	권차	문체	작품 수	해당 초고본
1	詩	79제 198수	『漫韻』 6권 古律詩 3,200여 수	17	墓誌銘	17	
2	詩	138제 216수		18	墓誌銘	17	
3	詩	92제 194수		19	墓表	25	
4	詩	34제 99수		20	墓表	19	
5	疏筭	23	『章疏錄』 4권 疏筭 400여 수		行錄	1	
6	疏筭	27		21	諡狀	4	『壹惠錄』 1권 諡狀 14수

7	疏筭	21	『啓議狀牒等錄』 2권 啓辭, 收議, 呈辭, 供狀 140여 수	22	謚狀	7	『述德錄』 1권 先考妣 狀, 表, 年譜 4수
	啓	3		23	行狀	1	
	議	1		24	行狀	4	
8	應製錄	31	『應製錄』 1권. 代撰한 大小文字 70여 수 『金石錄』 8권 碑碣, 誌, 表, 狀 180여 수 『志過錄』 1권 自誌, 自銘, 紀年과 亡室狀誌 7수	25	序	10	『雜述錄』 2권 散文 70여 수
9	神道碑銘	8		記	2		
10	神道碑銘	8		傳	2		
11	神道碑銘	9		雜著	4		
12	神道碑銘	6		祭文	4		
	碑銘	3		題跋	9		
	碑	5		27	雜著	1	『餘贅錄』 1권 投荒時, 歸田時의 雜識
13	墓碣銘	18		28	雜著	1	『燕行日錄』 3권 庚子壬子의 赴燕日錄
14	墓碣銘	21		29	雜誌	1	
15	墓碣銘	26		30	雜誌	2	
16	墓誌銘	20		31	書牘	14인 78수	『竿牘錄』 1권 尺牘 120여 수
				32	紀年錄	1	『私考』 2권 生年부터 未終의 기록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간행본 『도곡집』에는 초고본이 대체로 수용되어 있다. 다만 『堂后日記』 2권, 『丙丁日錄』 3권, 『簪筆錄』 4권, 『西遷日錄』 2권, 『私考』 2권 등은 간행본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堂后日記』는 과거에 급제한 뒤에 갑술년(1694)과 을해년(1695)에 승정원 가주서(정7품)로 있을 때에 남긴 史草이고, 『丙丁日錄』은 병자년(1696)과 정축년(1697)에 예문관에서 검열(정9품), 대교(정8품), 봉교(정7품)로 있을 때에 남긴 史草이다. 『簪筆錄』은 병자년(1696)에서 무인년(1698)까지 한림으로 있을 때에 올린 筵說을 모아 엮은 것이다. 이 세 기록은 翰林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긴 史草이고 이후 도곡 자신이 참여한 『숙종

실록』 편찬에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이니만큼 굳이 『도곡집』에 수록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西遷日錄』과 『私考』이다. 『私考』는 혹 간행본 말미에 실려 있는 『紀年錄』의 초고본이 아닐까 한다. 「遺識」에는, 『사고』에 대해 생년부터 말년까지의 기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년록』이 바로 평생의 행적을 정리한 기록이므로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서천일록』은 雲山에 유배되었을 때의 日錄이다. 도곡은 1722년 7월 5일에 유배지 운산에 도착하여 1725년 1월에 해배되어 떠날 때까지 2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이곳에 있었다. 하지만 『도곡집』에는 「庚子燕行雜識」과 「壬子燕行雜識」 외에 일록 형식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서천일록』은 일록의 성격을 훼손하지 않고 별도의 저술로 남겨졌을 수도 있고, 다른 기록에 편입되었을 수 있다. 예컨대 운산 유배기의 기록으로 간행본에 수록된 「운양만록」에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餘贅錄』 1권은 운산에 유배되었을 때와 도곡에 물러나 있을 때에 남긴 雜識로서 「운양만록」과 「도협총설」의 초고본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餘贅錄』에 『서천일록』의 내용을 결합하여 「운양만록」이 완성되었을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 유배 기간 동안에 사서삼경과 『예기』, 『소학』, 『朱書』, 『韓文』을 순환 반복하여 읽었다는 『기년록』의 기록과 「운양만록」과 몇 수의 詩 외에는 이 무렵 도곡의 일상을 보여주는 정보가 매우 드문데, 『서천일록』의 원형이 존재한다면 50대 중반의 도곡이 도달한 완숙한 학문 사변의 경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곡은 자신의 일생을 16단계의 분기로 구분하고 창작한 자신의 시를 각 분기별로 정리하여 16종의 시집을 엮었다. 평생 창작한 시를 일생의 경과에 따라 분류 정리한 사실은 「詩卷題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²²⁾ 16종의 시집은 아래와 같다.

22)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

① 『螢榻錄』 1689~1694.10

숙종 계해(1683)에 내 나이 15세로 비로소 관례와 혼례를 치렀다. 갑자(1684) · 을축(1685) · 병인(1686)에는 선친을 따라 海西와 關西로 가서 산천과 누대를 노닐며 창작한 시가 매우 많았으나 모두 散逸되었다. 정묘(1687)에 또 선친을 따라 남한산성에 갔고 기사(1689)에 時事가 변하여 온 가족이 물러나 향촌에 살았다. 이때 처음에는 高陽 風谷에 머물다가 廣州 楮湖로 옮겨가서 학업 익히기를 착실히 하여 창작한 시가 수천 수에 이른다. 갑술(1694) 봄에 책을 메고 豊壤의 山寺로 가서 農巖에게 『論語』를 질정하였다. 4월에 時事가 다시 변하여 선친을 따라 서울 집으로 돌아와 10월에 급제하였다. 釋褐 전에 창작한 시를 모아 2책을 만들고 ‘螢榻錄’으로 명명한다.²³⁾

② 『豹直錄』 1694.11~1709.6

나는 급제한 뒤에 곧 堂后의 일을 攝職하게 되었는데, 체직되고 다시 들어가기를 전후로 여섯 번 하였다. 丙子(1696)에 예문관에 선발되었으나 사정이 생겨 新薦하지 못한 채 下番에 머물러 1년을 지내고 上番에 올라 입직한 것도 거의 1년이다. 그 사이 說書로 옮긴 것도 세 번이다. 3,4년 사이에 史局과 春坊을 왕래하며 입직하여 늘 한가한 날이 많았다. 6품에 오른 뒤에 여러 차례 문학, 사서, 검사서, 검문학, 병조 좌랑, 정랑에 제수되었다. 또 玉堂에 뽑혀 부수찬, 수찬, 부교리, 교리, 부응교, 응교에 차례로 제수되었다. 戊子(1708)에 승지로 승진되고 이후로 다시 세 번 승정원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10여 년 동안 대체로 禁直에 있었다. 이때 창작한 약간의 시를 모아 ‘豹直錄’으로 명명한다.²⁴⁾

③ 『熊峽錄』 1709.7~1710.3

己丑(1709)에 봉양을 위해 伊川의 수령이 되었다. 부임한 뒤에 경내의 산천을 두루 구경하고 楓岳을 유람하였다. 伊川의 고향이 ‘熊耳’이므로 창작한 시를 ‘熊峽錄’으로 명명한다.²⁵⁾

④ 『鶯遷錄』 1710.3~1711.6

23)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螢榻錄】.

24)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豹直錄】.

25)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熊峽錄】.

庚寅(1710) 봄에 伊川府使에서 들어와 이조 참의가 되었다. 재임한 지 겨우 9개월 만이다. 下邑의 수령으로 있다가 要顯職에 제수되었으니, 골짜기에서 喬木에 오른 것과 같다고 할 만하다. 還朝한 뒤로 1년 남짓한 기간에 창작한 시가 적어 挽詞 10여 수뿐인데 ‘鶯遷錄’으로 명명한다.²⁶⁾

⑤ 『鰲藩錄』 1711.6~1712.3

辛卯(1711)에 형조 참의에서 경상도 관찰사로 제수되었는데 부임하고 10개월 만에 체직되어 돌아왔다. 우상 趙相愚가 상차하여 논척하므로 연이어 상소하여 체차를 청하느라 나가서 순행하지 못하여 도내의 산천명승을 한곳도 유람하지 못하였다. 단지 부임하는 길에 한번 梅鶴亭에 올랐을 뿐이며, 체직된 뒤에 잠시 성주의 雙溪寺, 함천의 海印寺, 대구의 壯節祠 · 畫巖 · 達城 등 몇 곳을 구경하였을 뿐이다. 처리할 장부와 문서가 많아 吟詠할 겨를이 없어 창작한 시가 매우 적다. 흥을 붙인 시 약간과 挽詞 몇 수를 묶어 ‘鰲藩錄’으로 명명한다. 道號인 慶尙이 慶州와 尙州 두 雄邑의 명칭을 쓴 것인데 경주의 옛 이름이 金鰲이므로 이를 기록의 명칭으로 삼는다.²⁷⁾

⑥ 『蝸羹錄』 1712.3~1714.7

壬辰(1712)에 中宮의 痘患이 平復하여 稱慶하고 인재를 뽑았다. 提學 李整이 시험을 맡아 사적인 인정을 쓴 정황이 훤히 드러나 여론이 들끓었지만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내가 대사간으로서 상소하여 논척하고 가두어 조사하여 사건이 결국 크게 발각되어 李整은 유배되고 합격자 4인도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이 특히 심하게 분노하여 끝없이 무함했었다. 그런데 내가 嶺南에 있을 적에 우연히 곤장을 맞고 죽는 자가 생기자 그들이 영남 사람을 사주하여 諸道에 合通하고 상소하여 나를 처벌할 것을 청하였다. 2,3년 동안 그들의 비난에 시달렸는데, 정말 매미가 울어대고 국물이 끓는 소리 같았다. 이에 마침내 詩稿를 ‘蝸羹錄’으로 명명한다.²⁸⁾

⑦ 『鵲臬錄』 1714.8~1715.8

26)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鶯遷錄】.
27)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鰲藩錄】.
28)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蝸羹錄】.

甲午(1714)에 대사성에서 황해도 관찰사로 나갔다. 8월에 부임하여 도내를 두루 순행하여 【兎山만 순행하지 못했다.】 山川의 빼어난 경치를 두루 유람하였다. 예컨대 海州의 首陽山 · 廣石 · 石潭, 結城의 挹淸亭 · 芙蓉堂, 黃州의 竹樓 · 月波樓 · 太虛樓, 長湍의 白沙汀, 平山의 蔥秀山, 金川의 映水屏 등을 모두 두루 유람하였다. 이듬해 8월에 辭遞하고 10월에 이조 참의로 還朝하였다. 재임 기간에 창작한 시를 ‘鵲臬錄’으로 명명한다. 鵲川이 海州의 지명인데 方伯의 감영이 海州에 있기 때문이다.²⁹⁾

⑧ 『龍谷錄』 1715.8~1720.10

乙未(1715)에 해서에서 돌아왔다. 이해부터 庚子(1720)까지 창작한 시를 ‘龍谷錄’으로 명명한다. 거주한 마을의 명칭을 취한 것이다. 중간에 草土를 겪어 창작한 시가 많을 수 없었다.³⁰⁾

⑨ 『燕槎錄』 1720.11~1721.3

庚子(1720)에 예조 참판에서 승품되어 冬至正使로 차출되어 연경에 다녀왔다. 도중에 부사 李喬岳과 서장관 趙榮世와 함께 各體로 수창한 시 392수를 묶어 ‘燕槎錄’으로 명명한다.³¹⁾

⑩ 『牛歲錄』 1721.3~1722.5

辛丑(1721)에 사행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사명을 받들고 江華府에 다녀온 뒤로 예조, 이조, 형조의 판서를 거쳤다. 12월에 土禍가 크게 발생하여 내가 가장 먼저 削黜되었고 곧이어 遠竄을 계청하는 자가 있어 郊垆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丑’은 ‘牛’이므로 이해에 창작한 시를 ‘牛歲錄’으로 명명하고 壬寅에 창작한 4수를 아래에 첨부한다.³²⁾

⑪ 『鵬舍錄』 1722.6~1725.1

壬寅(1722) 6월에 雲山郡에 잔류되었다가 乙巳(1725) 정월에 비로소 풀려났다.

29)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鵲臬錄】.

30)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龍谷錄】.

31)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燕槎錄】.

32)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牛歲錄】.

적소에 있던 기간은 4년이고 928일이다. 거처한 곳이 關西의 깊은 골짜기라서 인적이 끊기고 일없이 한가로워 책을 읽고 文字를 볼뿐 전혀 吟詠하지 않았다. 얻은 시가 겨우 60여 수뿐인데 ‘鵬舍錄’으로 명명한다.³³⁾

⑫ 『鶴歸錄』 1725.1~1727.6

乙巳(1725) 정월 27일에 雲山의 적소를 떠나 2월 9일에 入京하였다. 적소로 갈 적에는 景廟가 새로 寶位에 올랐는데 돌아올 적엔 이미 승하하고 山陵의 일도 막 끝난 뒤다. 先朝의 耨獻이 모두 살육되고 겨우 목숨을 보전한 자도 하늘이 남겨두지 않으시니, 지난날을 떠올리며 지금을 안타까워하는 심경이 어떨지는 알 만하다. 華表城郭의 감회는 말할 것도 없다. 마침내 이때 창작한 시를 ‘鶴歸錄’으로 명명하여 비통함을 표시한다.³⁴⁾

⑬ 『狐丘錄』 1727.7~1732.7

丁未(1727) 가을에 다시 세상이 뒤바뀌었다. 나는 재상에서 파직되어 陶山의 선영 아래로 돌아와 거처를 마련하여 지냈다. 그 사이 국가에 變故가 있어 奔問하고 돌아오기를 자주하였지만, 陶山이 여생을 마칠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詩稿를 ‘狐丘錄’으로 명명한다.³⁵⁾

⑭ 『驢跡錄』 1732.7~1732.12

壬子(1732)에 나는 陶山에 있었다. 이때 淸의 史書에 先朝를 무고한 말이 있어 사신을 보내 변무했는데 저 나라가 改正한 본을 보여주기로 허락하였다. 我國이 이를 은혜로 여겨 사은사를 보내려는데, 무더운 시기라서 사람들이 모두가 가기를 꺼리고 宗班도 가려하지 않아 결국 내가 正使로 차출되었다. 내가 64세의 나이로 衰病함이 깊어 먼 길을 떠나기 정말 어려웠다. 두 차례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으시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힘든 일을 피한다는 혐의도 없지 않아 억지로 명을 받들고 가게 되었다. 이때 비바람에 신음하고 탄식함을 번번이 시로 표현하여 모두 350수의 시를 창작하였는데, 이를 ‘驢跡錄’으로 명명한다. 두 번째 걸음이라 거의 숫돌을 돌리는 나귀가 지난 발자국을 다

33)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鵬舍錄】.

34)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鶴歸錄】.

35)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狐丘錄】.

시 밝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이른다.³⁶⁾

⑮ 『鴻樞錄』 1732.12~1737.12

壬子(1732) 12월에 여행을 마치고 복명한 뒤에 즉시 玄石의 江上으로 나가니, 성상께서 내가 鄉外에 있다고 엄한 하교를 내리시고 신하로서 차마 듣지 못할 말씀까지 하셨다. 결국 入城하여 待罪하니 성상께서 머물 것을 더 힘껏 권하시므로 부득이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다. 중간에 말미를 얻어 下鄉하여 初志를 이루려 했지만 병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乙卯(1735) 봄에 영의정에 제수되었으나 달아나 陶山에 가서 힘껏 사양하였다. 마침 상소하여 성상의 뜻을 떠보는 흉당들이 있어 상황이 걱정되어, 상소하여 경계하다가 크게 성상의 뜻을 거슬러 특명으로 삭직되었다. 얼마 후에 국가의 경사가 있어 사면되는 사람들 사이에 뒤섞여 서용되어 관중추부사가 되었다가 영중추부사로 옮겼으니 5,6년 사이에 연이어 중추부에 근무하였다. 그 사이에 창작한 시를 ‘鴻樞錄’으로 명명한다. 鴻樞는 西樞를 이른다.³⁷⁾

⑯ 『鮐背錄』 1738.1~

戊午(1738)에 내 나이가 칠순에 왔으니, 이후로 창작한 시를 ‘鮐背錄’으로 명명한다. 『시경』의 ‘황구에 복어의 등[黃耆鮐背]’이란 말의 주석에 ‘黃耆는 노인의 칭호이니, 노인의 등에 복어 무늬가 있음을 이른다.’고 하였다. 내 나이가 古稀가 되었으니 노인이라 할 만하고, 노인의 등에 복어 무늬가 있음은 당연하다. 이로써 명명함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³⁸⁾

간행본 『도곡집』에는 1권에서 4권까지 시가 수록되어 있고 모두 연차별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나이	서기	작품 수	권차	초고본	나이	서기	작품 수	권차	초고본
----	----	------	----	-----	----	----	------	----	-----

36)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驢跡錄】.

37)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鴻樞錄】.

38)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鮐背錄】.

15	1683	0		지은 詩가 많으나 모두 散逸 ³⁹⁾	48	1716	1수	1	龍谷錄	
...	...	0			49	1717	2제 3수	1		
18	1686	0			50	1718	0	1		
19	1687	0		螢榻錄 2책 수천 수 ⁴⁰⁾ 釋褐前	51	1719	0	1	燕槎錄 ⁴²⁾ 庚子燕行 392수	
...	...	0				1720	2수 ⁴¹⁾	1		
24	1692	3제 9수	1		52	"	54제 65수	2		
25	1693	0	1		53	1721	49제 83수	2	牛歲錄 신축작과 임인작 4수 ⁴⁴⁾	
26	1694	0	1			"	2수 ⁴³⁾	2		
	"	0	1		54	1722	2수 ⁴⁵⁾	2		
27	1695	0	1		豹直錄		"	5제 15수	2	鵬舍錄 雲山 유배기 60여 수 ⁴⁶⁾
28	1696	1제 6수	1			55	1723	0	2	
29	1697	2수	1			56	1724	9제 14수	2	
30	1698	2수	1			57	1725	2제 15수	2	鶴歸錄
31	1699	1수	1				"	2제 4수 ⁴⁷⁾		
32	1700	2제 3수	1	58		1726	7수	2	狐丘錄	
33	1701	3제 7수	1	59		1727	6제 9수 ⁴⁸⁾	2		
34	1702	2제 3수	1				"	9제 10수	3	
35	1703	0	1	60		1728	9제 11수	3	驢跡錄 ⁵⁰⁾ 壬子燕行 350수 ⁵¹⁾	
36	1704	0	1	61		1729	3제 6수	3		
37	1705	2수	1	62		1730	2수	3		
38	1706	4제 5수	1	63		1731	1수	3		
39	1707	3수	1	64		1732	2제 3수 ⁴⁹⁾	3		
40	1708	5제 11수	1				"	66제 161수		3

41	1709	5제 6수 ⁵²⁾	1		65	1733	8제 14수	4	鴻樞錄
	"	0		熊峽錄 금강산 115수와 伊川 창작시 ⁵³⁾	66	1734	2제 13수	4	
42	1710	18수	1		67	1735	5수	4	
	"	3수 ⁵⁴⁾		鶯遷錄	68	1736	5제 6수	4	
43	1711	4제 5수 ⁵⁶⁾	1	挽詞 10여 수 ⁵⁵⁾	69	1737	5제 8수	4	
	"	0		鰲藩錄	70	1738	3제 10수	4	
44	1712	3제 94수 ⁵⁷⁾	1		71	1739	2제 31수	4	鮐背錄
	"	0		蝸羹錄	72	1740	2제 8수	4	
45	1713	2제 3수	1		73	1741	0	4	
46	1714	1수 ⁵⁸⁾	1		74	1742	0	4	
	"	3수	1	鵲泉錄	75	1743	0	4	
47	1715	5수 ⁵⁹⁾	1		76	1744	1수	4	
	"	0		龍谷錄	77	1745	1제 3수	4	
					작품 수 총계 : 343제 707수				

39)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

40)상계서, 권26 「詩卷題語【十六則】」.

41)경자년에 창작한 56제 67수 가운데 권1에 실린 2수는 모두 연행에 오르기 전에 창작한 것이다. 곧 「閔判書【鎭厚】挽【庚子】」은 5월에 창작하였고, 「肅宗大王挽詞【五十韻】」은 6월에 창작하였다.

42)도곡은 경자연행에서 392수의 시를 창작하였다. 李宜顯『陶谷集』 권30 「庚子燕行雜識下」, “往還摠計一百三十八日, 在異域者一百一日, 里數則通往返大約六千餘里也, 得詩三百九十二首.”

43)신축년에 창작한 51제 85수 가운데 앞의 49제 83수는 연행 중에 창작하였고, 끝에 실린 「通津府次板上韻【辛丑奉使江都】」와 「鹿川李領相從叔【濡】」 2수는 연행 후에 창작하였다.

44)李宜顯『陶谷集』 권26 「詩卷題語【十六則】」.

45)임인년에 창작한 7제 17수 가운데 앞에 실린 「龍湖次任生【述】寄示韻【壬寅】」과 「次任生韻」 2수는 6월에 운산에 유배되기 이전에 창작한 것으로

위의 표는 『도곡집』에 수록된 시를 연차별로 나누고, 초고본과의 관계

보인다.

- 46)李宜顯 『陶谷集』 권26 「詩卷題語【十六則】」.
- 47)을사년에 창작한 4제 19수 가운데 앞의 2제 15수는 운산에서 해배되어 돌아 오기 직전에 창작하였고, 뒤의 「申判書【鉉】挽【乙巳】」 3수와 「柳都事【應煥】挽」 1수는 4월 이후에 창작하였다.
- 48)정미년에 창작한 15제 19수 가운데 권2에 수록된 6제 9수는 이해 1,2월경에 창작하였고, 권3에 수록된 9제 10수는 정미환국으로 7월에 우의정에서 파직되어 양주 도산으로 물러난 뒤에 창작하였다.
- 49)임자년에 창작한 68제 164수 가운데 앞의 「趙持平【正純】挽【壬子】」 2수와 「哭洪領相【致中】」 1수는 모두 7월 이전에 창작하였고, 「到坡州【壬子燕行】」부터 나머지 66제 161수는 7월에서 12월까지 이어진 연행 중에 창작하였다.
- 50)도곡은 임자연행에서 350수의 시를 창작하였다. 李宜顯 『陶谷集』 권30 「壬子燕行雜識」, “往還總計一百三十七日, 在異域者八十一日, 里數通往返大約六千四百三十五里也, 得詩三百五十首.”
- 51)『陶谷集』 권26 「詩卷題語【十六則】」.
- 52)기축년에 창작한 5제 6수는 모두 伊川에 부임하기 전에 창작하였다. 마지막의 「宋判書【奎濂】挽」이 임지로 떠나기에 앞서 6월에 창작하였다.
- 53)도곡은 금강산 유람에서 115수의 시를 창작하였다. 李宜顯 『陶谷集』 권25 「遊金剛山記」, “是行也凡旬有二日而後返, 陸行五百四十里, 山行一百十里, 海行二百十里, 摠之八百六十里也, 得詩一百十五首.”
- 54)「淮陽途中」까지가 『熊峽錄』에 속하고 6월 초에 창작한 「李參判【思永】挽【庚寅】」부터 『鶯遷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앞에서 표기한 ‘庚寅’이란 간기를 다시 이곳에 표기한 점에서 전후를 구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5)李宜顯 『陶谷集』 권26 「詩卷題語【十六則】」.
- 56)신묘년에 창작한 4제 5수는 모두 慶尙道觀察使로 부임하기 전에 창작하였다. 마지막의 「洪判書【受憲】挽」이 부임하기에 앞서 6월에 창작하였다.
- 57)임진년에 창작한 3제 94수는 모두 관찰사로서 경상도에 머물던 시기에 창작하였다.
- 58)갑오년에 창작한 4수 가운데 앞의 「金忠州【鎭華】挽【甲午】」는 2월에 창작하였고, 「宿坡州【赴海營】」는 부임하는 길에 창작하였고, 나머지 두 수는 임소에서 창작한 시이다.
- 59)을미년에 창작한 5수는 모두 관찰사로서 황해도에 머물던 시기에 창작한 것이다.

를 밝혀본 것이다. 기본적으로 간행본의 시 배열이 연차순으로 되어 있어 큰 오류가 있지는 않을 것이나 초고본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를 구획하기에는 부분에서 불명확한 부분도 없지 않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년의 습작들은 대부분 간행본에 실리지 않았고 나머지도 상당부분 산삭되었다.

IV. 맺음말

이상의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곡집』 번역과 관련하여 도곡 이의현과 『도곡집』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작성된 것이다. ‘『도곡집』을 통해 본 도곡 이의현의 학문 저술과 문예’라는 주제로 기획된 학술회의 속에서 각론으로 설정된 연구 주제로서, 본격적 문학 연구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단지 도곡의 일생 행적과 『도곡집』 소재 작품의 분류와 창작 시기 등에 국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도곡은 서인과 남인이 대립하고 노소가 분기하여 다시 격하게 대립하던 숙종, 경종, 영조 세 왕대에 걸쳐 활동하던 정치가이자 문인 학자로서 老論 洛論의 학맥을 계승하는 대표적 인물이 되었다. 다만 도곡은 대체로 관료로서의 정치적 야망을 꿈꾸기보다는 문인 학자적 삶에 치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 정보를 소개하고 시문을 창작하는 일에 진력함으로써 학문과 문예에 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런 그의 삶의 지향은 『기년록』에서 충분히 확인되며, 그가 남긴 『도곡집』 곳곳에서 기술된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곡집』은 도곡의 학문과 문예의 세계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며, 특히 碑誌類 산문을 비롯해 遊記, 漫錄, 叢說, 燕行雜識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문학의 형태를 보이 고자 한 시험적 작품에 해당하는 것이면서 새로운 학문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그의 문집을 살펴보면 碑誌文이 유난히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데다 개별 작품마다 篇, 章, 句, 字 및 어세와 표현 수법에 있어서 제각기 특색이 있게 창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농암이 역대 문인들의 산문을 평론하면서 자주 비지문의 성취에 대해 언급하였던 점을 상기해보는다면, 이것이 문학적 성취를 위한 시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충분히 직감할 수 있다. 또한 「遊金剛山記」와 「伊川諸勝遊覽記」이 보여주고 있는 유기적 완성도와 尺牘에서 보여주는 소품적 절제미는 당대 문단에서 유행하던 遊記와 尺牘 양식에 대한 도곡의 대응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庚子燕行雜識」와 「壬子燕行雜識」은 여행록의 형식적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청나라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사회 문화와 풍물 및 器物 등에 대한 섬세하고 치밀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여행록과 차별화되고 있다. 「雲陽漫錄」과 「陶峽叢說」도 역시 筭記 형식의 필기류 산문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인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평론과 관료 출신으로서의 당대 현실에 대한 통찰을 기록하고 있어, 시대 기록으로서의 목적성에 충실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본 논고에서는 도곡의 생애와 간행본 『도곡집』의 형태적 양상에 대해 간략하게 조망하는 정도로 서술이 진행되었으나 향후 『국역도곡집』의 완성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參考 文獻>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李栽 『密菴集』

金誠一 『鶴峯集』

李宜顯 『陶谷集』

정옥자(1984), 「도곡 이의현과 그의 문학관」, 『한국사론』11, 서울대 국사학과
김철조(1989), 「박효량 (朴孝娘) 사건과 그 문학적 연변」, 『인문연구』 10, 영
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정순(1994), 「陶谷 李宜顯의 문장론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청구논문

기정순(1999),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 小考」, 『한문학논집』 17집, 근역한문학
회

박은정(1999),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 研究」,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정순희(2001), 「조선중기 古文論 해석의 문제점 :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을 중
심으로」, 『한국언어문학』 47집, 한국언어문학회

송혁기(2003), 「18세기초 散文理論의 전개양상 一考 : 李宜顯·申維翰·趙龜命
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31집, 한국한문학회

조성산(2003), 「17세기 말~18세기 초 洛論系 文風의 형성과 朱子學的 義理論
」, 『한국사상사학』 21집, 한국사상사학회

정순희(2004), 「古文論과 碑誌類의 상관성 : 陶谷 李宜顯의 碑誌類를 중심으
로」, 『어문연구』 46권, 어문연구학회

신복호(2004), 「18세기 관각문학 연구 : 이의현, 이덕수, 서명응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김하윤(2004), 「도곡 이의현의 작문론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류준경(2004), 「박효량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5,
한국고전문학회

박은정(2005), 「17C 말 18C 전기 농암 계열 문장가들의 고문론 연구 : 김창

- 협·이의현·이덕수·신정하·이하곤의 한구정맥론을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전경목(2005), 「박효량 사건의 전말과 소송상의 문제점」, 『법사학연구』 31,
한국법사학회
- 민복기(2007A), 「도곡 이의현 산문비평의 연원에 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
위논문
- 민복기(2007B), 「도곡 이의현의 반의고적 산문비평」, 『동양한문학연구』 25집,
동양한문학회
- 사경화(2012), 「陶谷 李宜顯의 簡嚴追求와 文學的 具現 : 碑誌類를 중심으로
」,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Contemplation on Life and Writings of Dogok Yi Ui-hyeon
/ Shin Young Ju*

Dogok Yi Ui-hyeon was born in a reputed noble family and became a representative person who succeeded the academic sector of Noron Nakron. In general, he was fully dedicated in introducing the knowledge information and writing poetry and essay with the focus on literature scholarly life rather than dreaming of political ambition as a bureaucrat to leave his legacy in academic and literature accomplishment. The study to this period on Dogok is almost always related to the theory of prose. His works were tracing down the theories on creative writing in prose and critiques to compose the actual organization of the history of prose theory in later part of Joseon. Under this writing, the scope of description is limited to the representation type of poetry and essay collection and life of Dogok. In the direction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currently on-going commentary work of Dogok Collection, the life of Dogok is seen by dividing into terms and undertaken for description in the level of viewing the outline on the representative trend of the published Dogok Collection.

【Key words】 Dogok, Yi Ui-hyeon, Prose, Yeonhaengrok, Sinim Sahwa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일 :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

* An assistant professor in Sungshin University / zuowang@hanmail.net